

## 정일미

## 2위 '상큼한 출발'



3언더파…선두와 1타차  
김미현 4위·박세리 7위

## ■ LPGA ADT챔피언십 1R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 가운데 맨먼저 정일미(34·기아골프)가 시즌 최종전인 ADT챔피언십 첫날 선두에 1타차 공동 2위에 올랐다.

정일미는 17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 웨스트팜비치의 트럼프인터내셔널골프장(파72·6천506야드)에서 열린 1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쳐 선두 미야자토 아이(일본)에 1타를 뒤졌다.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었지만 버디 4개를 뽑아내고 보기는 1개로 막는 선전을 펼쳤다.

와일드카드로 출전한 일본의 '아이짱' 미야자토는 버디 6개와 더블보기 1개로 4타를 줄여 단독 선두로 도약했고, 상금왕을 노리는 우승 후보 카리 웹(호주)이 정일미와 공동 2위를 형성했다.

김미현(29-KTF)은 버디 3개와 보기 1개로 2언더파 70타를 작성해 나탈리 걸비스(미국) 등과 공동 4위를 형성했고, 박세리(29-CJ)도 1언더파 71타로 공동 7위에 올라 우승 가시권에 들었다.

장타자 이지영(21·하이마트)은 이븐파 72타를 쳐 공동 11위, 한희원(28·휠라코리아)은 1오버파 73타로 공동 14위에 머물러 주춤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강경남 '왕중왕'

## KPGA 챔피언스 최종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2006시즌 상금왕을 확정지은 강경남(23·삼화자축은행)이 챔피언끼리 겨루는 이벤트대회에서 '왕중왕'에 올랐다.

강경남은 17일 경북 영덕 오션밸리골프장(파72·6천784야드)에서 열린 동부화재프로미배 KPGA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마지막 날 2개의 이글을 뽑아내는 등 7언더파 65타를 몰아쳐 2라운드 합계 9언더파 135타로 김형석(26·르꼬끄골프)을 1타차로 제치고 짜릿한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역대 챔피언 22명이 겨루는 일반부에서 우승컵을 품에 안은 강경남은 1천400만원의 상금을 보너스로 쟁취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정일미가 17일 미국 플로리다 트럼프인터내셔널골프장에서 열린 LPGA 투어 ADT챔피언십 1라운드 18번홀에서 어프로치샷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 4살 한국인 '골프 신동' 스페인서 화제



여름 라운딩에서는 100m에 이르는 드라이버 샷을 날리기도 했다.

키 109cm, 몸무게 22kg, 라 코루나 콘셉시온 아레날유 아원에 다니는 이

군은 지난 해 8월부터 드라이버를 잡기 시작했고 정규 18홀을 둘면서도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이 군의 재능을 눈여겨 본 가족들은 올해 8월 스페인골프협회에 정식 회원으로

## 드라이버 샷 100m·18홀 70타

## 신문·방송 인터뷰 요청 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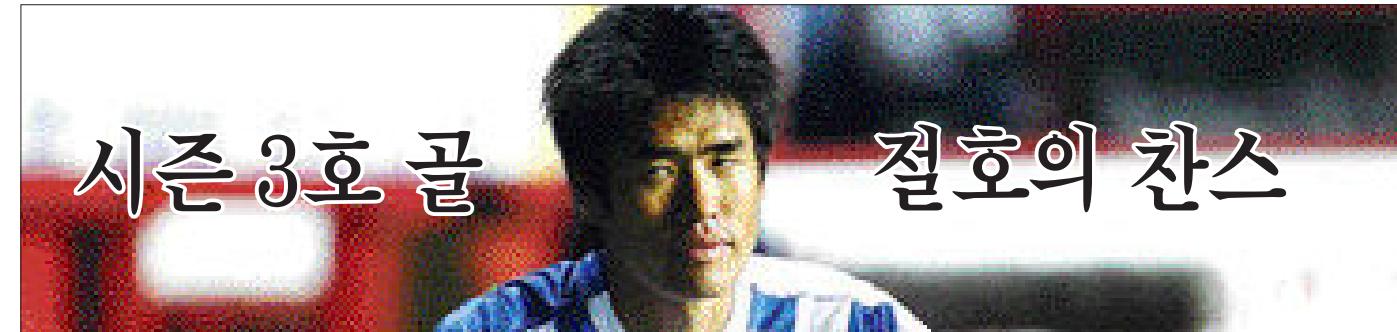
등록시켰고 시(市)에서 운영하는 토례골프장에서 18홀(파 54) 70타를 기록했다.

지난 9월에는 토례골프장 회원들이 참가하는 클럽토너먼트에 출전, 7오버파 61타를 쳐 3위를 차지해 또 하나의 '타이거 우즈'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

소문이 퍼지자 스페인 신문·방송으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고 최근에는 지역 유력 일간지 '라 보스테 갈리시아' 기자가 이 군과 함께 골프를 치면서 놀라운 실력을 확인한 뒤 기사화하기도 했다.

- ▲N-리그(김포-대전)(14:50·KBSN SPORTS)
- ▲제16회 대륙간컵 야구대회(17:00·KBSN SPORTS)
- ▲FIVB 세계 남자배구 선수권(한국-캐나다)(17:50·Xports)
- ▲대학장사씨름 1차대회 역사급(18:00·MBC ESPN)

- 19일(일)
  -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레딩-찰튼)(00:00·MBC ESPN), <셰필드-맨체스터 Utd>(02:30·MBC ESPN)
  - ▲FIVB 세계 남자배구 선수권(카자흐스탄-한국)(13:50·Xports)
  - ▲프로축구 챔피언 결정전 1차전(13:55·KBC)



## 프리미어리그 설기현, 오늘 최하위팀 찰튼전 출격

'스나이퍼' 설기현(레딩FC)가 최하위 찰튼 어슬레틱을 상대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3호골을 노린다.

설기현은 18일 자정(이하 한국시간) 홈구장인 마데스키스타디움에서 열릴 찰튼과 2005-2006 프리미어리그 13차전 출격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1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7차전에서 2호골을 터트린 뒤 5경기째 침묵한 설기현에게 최하위 찰튼과 맞대결은 득점포를

제가동할 좋은 기회다.

2승2무8패로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찰튼은 올 시즌 12경기 만에 신임 감독 이안 도위를 경질하는 등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이번 레딩전은 새로 지휘봉을 넘겨 받은 레스 리드 감독이 찰튼 사령탑으로 치르는 첫 경기다. 찰튼은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1무5패로 승리가 없다.

12일 레딩전에 선발 출전, 지난 8월26일 에버턴전 이후 78일만에 프리미어리그 경기

에 모습을 드러낸 이영표(토튼햄)는 20일 오전 1블랙번 로버스와 원정경기에서 연속 출장이 기대된다.

◇해외파 주말 경기

▲18일(토) 조재진 = 시미즈-요코하마(오후 2시, 원정) 김진규 = 이와타-FC도쿄(오후 2시, 홈) 김동현 = 루빈 카잔-시투른 모스크바(오후 8시, 원정) 김동진-이호-현영민 = 제니트-쉬니크 야로슬라브(오후 10시, 원정) 차우리 = 마인츠-함부르크 SV(오후 11시30분, 홈) 설기현 = 레딩FC-찰튼(자정, 홈) ▲20일(월) 이영표 = 토튼햄-블랙번(오전 1시, 원정)

## 수원 차범근 감독

## '두뇌싸움' 성남 김학범 감독



## ■ 내일 K리그 챔프 1차전

김학범·성남 일상 감독과 차범근 수원 챔프 1-2경기로 오르기 위한 마지막 승부에 나선다. 19일(한국시간)과 25일(이하 오후 2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지는 2006 삼성하우젠 프로축구 K-리그 챔피언결정전에 앞둔 전기리그 1위 성남과 후기리그 1위 수원의 두 사령탑은 '필승 전술' 구상에 여념이 없다.



## 차감독 "전술 훈련 비공개"

## 김감독 "우린 숨길게 없다"

도 챔피언결정전을 앞둔 선수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좁은 공간에서 술래잡기를 하거나 가벼운 미니게임을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흥미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키어 넣는 '센스'를 발휘하고 있다.

◇ 숨길게 없는 자신감 '김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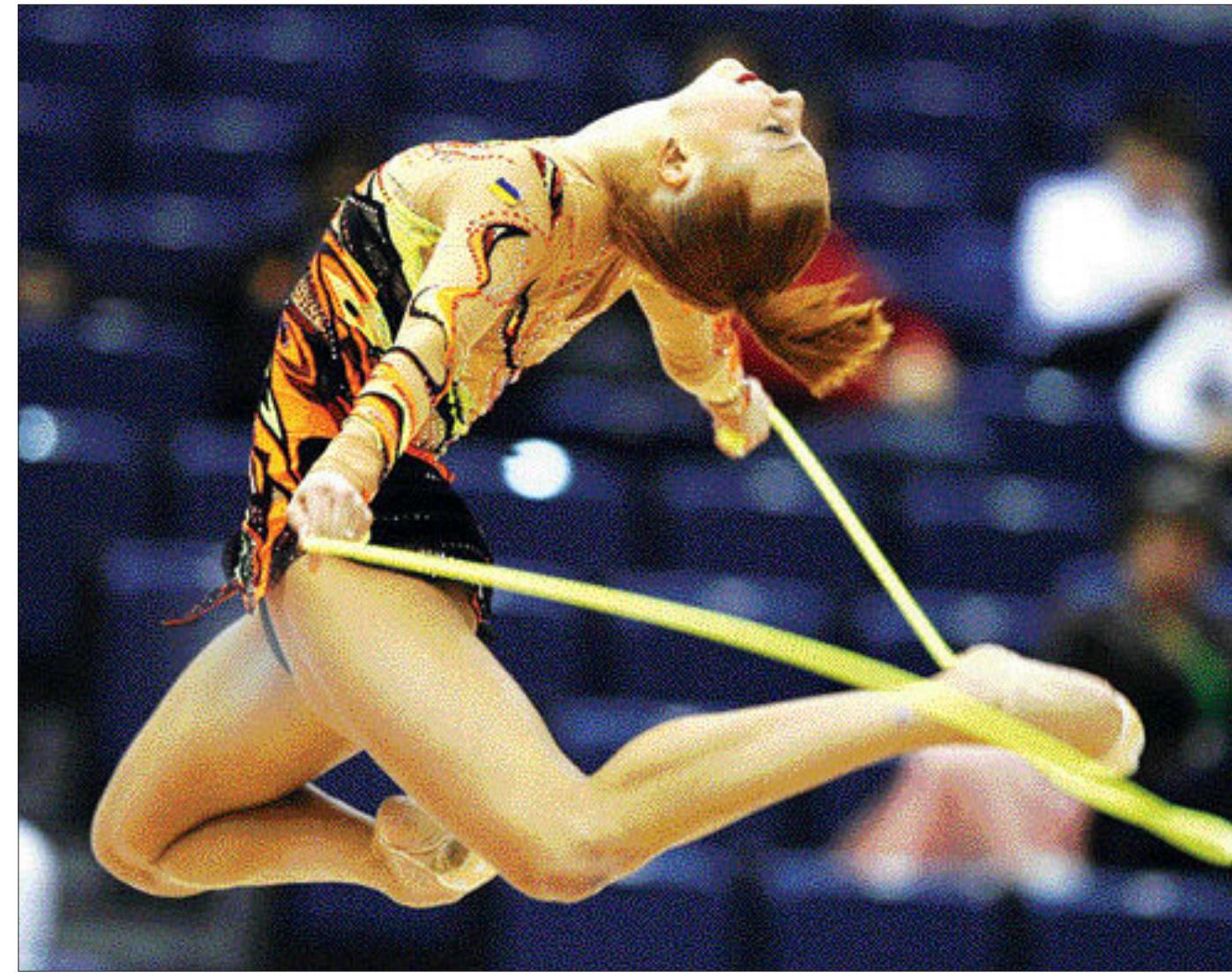
프로축구 K-리그에서 '학구파'로 소문난 김학범 감독은 최근 축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따내면서 '김 감독'이라는 호칭

보다 '김 박사'라고 불리는 게 더 자연스럽기만 하다.

김 감독은 지난 2001~2003시즌까지 성남의 수석코치로 3차례의 K-리그 정상을 등극을 보좌해온 화려한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챔피언결정전 준비에서도 남다른 여유를 느낄 수 있다.

수원의 차 감독이 최종훈련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내세운 반면 김 감독은 숨길게 없다는 듯 공개훈련을 선언했다. 더구나 차 감독이 챔피언결정전 개최 시간에 맞춰 오후 2시에 훈련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김 감독은 17일 오전 10시에 1차례 훈련을 실시한 뒤 경기 전날인 18일에는 오후 3시에 최종훈련을 잡아 놨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한상의 리듬체조 로프연기

우크라이나의 나탈리야 고든코가 17일 일본에서 열린 론컵 리듬체조대회에서 로프연기를 펼치고 있다. /AFP=연합뉴스